

나. 적정한 소방도구의 설치

다. 초기 소화설비의 확보(발화건물)

라. 전기시설의 규정공사 및 사용상의 주의(발화건물)

K 벽 화점 화재

연소중인 석유근로에 주유중 발생한 실화(부상 1명, 건물피해액 약 1억 2천 8백만원)

1. 일반 사항

소재지 : 대구시 중구 화전동

건물명 : K 벽 화점

소유주 : D 산업(주)

2. 건물 개요

대지 726 m² 정도. 1971년 3월 착공, 동년 10월 지하1층-3층 건축 1974년 4,5층을 증축하여 철근 콘크리트 5층 건물이 완공됨. 건물 5층의 목조부분 62 m² 정도는 75년말 카바레 내장시 추가 시공한 것으로 추정됨. 건물의 대체적인 모양은 L자 형으로 대지 경계선을 따라 불규칙한 벽선으로 이어졌으며 양단이 모두 도심 번화가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음. 층별 현황을 살펴 보면,

층 별	면 적 (M ²)	용 도
지하 1층	514.8	기계실, 싸롱(미입주)
1 층	512.6	벽 화점 매장(임대)
2 층	539.0	다방(임대) 음식점(직영)

3 층	539.0	분식센터(직영)
4 층	539.0	음악감상실(직영), 관리사무실
5 층	507.2	카바레(직영)
옥탑	65.1	목공실, 저수조
계	3,236.7	

3. 화재 상황

화재는 1975. 3. 14. 14시 20분경 2층 다방의 주방에서 발생, 화재 당일 남녀대학생 6명이 불우이웃돕기 1일 다실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주방장(17세.남)이 불이 붙어 있는 석유곤로의 심지를 돌려 놓고 기름탱크에 석유를 주입하다가 석유가 밖으로 흘러 바닥에 퍼지고 불꽃이 곤로위와 기름물은 주방장의 하의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음. 다방내에 시설된 인화성이 강한 내장재에 불길이 닿으면서 불은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설치되어 있던 소화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채 상층으로 연소하기 시작하였음. 출동한 20여대의 소방차가 진화작업을 벌였고 고가사다리를 이용하여 4층에 갇힌 종업원들의 단명을 구하기도 하였다. 화재는 약 2시간이 경과한 16시 20분경 진화되었다.

4. 피해 상황

화재를 일으킨 다방 종업원이 부상을 입었고 2-5층 내장설비가 대부분 소실 또는 손상되었으며 심한 화열을 받아 천정스라브 및 건물 외부의 일부가 균열되었음.

인명피해 : 부상 1명

건물피해액 : 127,699,638 원

보험금액 : 136,000,000 원

보험금지금액 : 건물 62,517,766 원

인명 100,000 원

5. 문제점 및 대책

건물내에는 소화기,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등 소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진화작업에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고 주계단이 피난계단이어야 하는 등 건물에는 피난계단의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았으며 층별 방화구획도 미비한 상태였다. 또한 건물의 일부(전체 벽선의 15%)만이 소방도로에 면해 있어 건물내부까지 소화수가 미치지 못하였으며 화재를 고려하지 않고 건물내 업소마다 무질서하게 가연성 내장재가 설치되어 있어서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방훈련의 강화, 피난계단 및 층별 방화구획등 주요 방화시설의 설치, 가연성내장재의 사용을 억제하였다면 화재발생의 방지 또는 피해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대구 S 시장(1,4 지구) 화재

11번째의 S 시장 대화—화인은 미상—(건물피해액 약 25억원)

1. 일반 사항

소재지 : 대구시 중구 대신동

건물명 : S 시장 1,4 지구

소유주 : 개인 분양

연 령 : 1913년 자연시장으로 발생, 1914년 시장으로 구획지정

61년부터 4개지구가 모두 현대식 건물로 건축됨.

69년에 2지구, 72년에 1지구, 73년에 3,4지구가 모두

민영화되어 각 점포별로 개인분양됨.